

미래사서의 역할

최 석 두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도서관 환경의 변화
3.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4. 사 서
 - 4.1 도서관전산화와 사서
 - 4.2 데이터베이스와 사서
 - 4.3 정보서비스와 사서
5. 교 육
 - 5.1 교과내용
 - 5.2 재교육
6. 맺음말

1. 머리말

1992년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 재학생을 보면 4년제대학 30개 대학 5,216명(남자 1,240명, 여자 3,97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6개 대학 1,284명(남자 201명, 여자 1,083명)이 재학하고 있다. 또한 석·박사과정 재학생이 224명(남자 92명, 여자 132명)이 재학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6,724명이나 된다(교육부 1992).

이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의 보유하거나 사용가능한 컴퓨터 관련시설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24-29). 이런 시설과 교과과정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도서관시스템 혹은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

는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과 학생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사회의 정보요구, 기기, 소프트웨어 등은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내닫고 있다. 오늘과 함께 뛰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환경이 그렇다고 앉아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각자는 우선 자신을 위해서, 다음으로 문헌정보학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수십만 이상의 상품을 소장하고 그 상품의 구매자가 연간 수십만 이상인 사업중 도서관 이외에 전산화 되지 않은 업종을 본 적이 있는가?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들의 역할을 '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식견도 없는 도서관계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사서가 사회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한 Dowlin(1989)의 말을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다.

2. 도서관 환경의 변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책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 보관하고, 편리한 유틸리티를 준비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정보센터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영향을 주는 기술은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메뉴얼시스템에서 전산화시스템으로 바뀌고,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으로 바뀌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들은 CD-ROM류를 매체로 대량 전환되고 있으며, 영·화상데이터베이스가 증가일로에 있다.

도서관학이란 명칭이 문헌정보학으로 바뀌었으며, 내용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검색, 자동색인, 도서관자동화, 커뮤니케이션, 인지과학,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과학,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정보관리와 관련된 과목이 많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도서관 봉사 혹은 정보봉사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환경의 변화는 보다 빨라질 것이며 이에 보다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까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데이터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출판물이며, 이 새로운 출판물은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이 '공공의 재산'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곧 이용자들이 Dacom-net, KIETLINE, DIALOG, OCLC, American Chemical Society, EasyNet 등을 도서관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때가 올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서는 정보전문직에 대한 소신, 확신, 자부심을 가지고, 5년, 10년 그 이상의 앞을 내다보고 문헌정보학의 기본인 정보와 봉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용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전산화의 목적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업무효율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다. 전산화의 모든 방향은 전산화함으로써 이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정보시스템과 이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간의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직접 터미널을 통하여 액세스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용자가 전문가의 도움없이 자신의 정보요구나 업무처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페이스란 인간과 기계사이의 완충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이얼식 전화기보다는 버튼식의 인터페이스가 향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터페이스를 생각할 때 사용하기 편함 및 친근함(user friendly)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인터페이스가 좋은 시스템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나쁜 시스템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하다. 1)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되어 있고, 2) 입력량이 적고 출력량이 많아야 하며, 3) 사용하기 쉽고 친근하며, 4) KISS(Keep It Stupidly Simple), 5) 기호나 명령어가 상식적이고, 6) 문법이 이해하기 쉽고, 7) 에러에 대해 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시스템이란 사서든 도서관 이용자든 혼자서 "아하!"를 연발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정보요구나 업무처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은 자명할 것이다.

4. 사 서

4.1. 도서관전산화와 사서

오늘날 많은 사서들이 컴퓨터에 대한 일종의 공포(cyberphobia)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수단이어야 할 컴퓨터가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단 이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도서관시스템이란 문헌정보학적인 개념과 전산학

적인 개념이 적절히 혼합되어야만 도서관시스템다운 시스템이 탄생될 수 있다. 도서관학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도서관전산화가 아니라 도서관업무 전산화가 되며, 전산학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이용자와 시스템이 유리되어 시스템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도서관의 기본데이터를 만드는 목록부서에서는 컴퓨터와 분담목록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보다 목록사서 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많이 줄었다(Hafter 1986, 63-64). 통합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됨으로써 오리지널캐탈로깅이 줄어들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는 일이 주업무가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관의 정책에 맞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는 일, 전자데이터의 다운로드, 작성, 확인, 수정 등의 많은 일들이 포함된다.

업무의 처리내용과 처리방법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목록에 포함될 서지사항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공저자는 수에 상관없이 모두 표목으로 삼기도 하며, 레코드의 길이를 카드목록에 비하여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으며, 한글초록, 영문초록, 서지레코드간의 각종 링크, 다양한 액세스포인트, 심지어는 전문(全文)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기기 및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서의 반복적인 업무를 보조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서의 책임하에 있던 목록, 오리지널캐탈로깅, 전자통제, 상호대차, 장서개발, 참고봉사 등의 업무까지를 보조원에게 위임하는 곳이 많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Dyckman 1992, 77-90). 사서의 설자리는 어디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컴퓨터라는 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정보요구의 충족이라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전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알고 도서관시스템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만 컴퓨터를 과신하여 인간적인 면을 소홀히 하거나, 컴퓨터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도서관시스템을 배제함으로써, 이용자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오랜동안 유지해온 매뉴얼시스템에서와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전산화시 사서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 의사결정이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의 사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추가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일찌라도 문헌정보학과 전산학을 기초로한 확고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2. 데이터베이스와 사서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정리 통합하여 컴퓨터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킨 정보화일 또는 그것의 집합체이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널리 이용가능하며 유용한 외부정보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가 처리하여 이용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색인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용을 전제로 한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가 색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보검색의 입장에서 보면 “색인은 정보이용자와 정보원을 연결하는 중간매체로서 정보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추출하여 그 소재를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소재지시 기호를 첨부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검색매체”라고 할 수 있다. 색인작업은 흩어져 있는 사실을 대상과 용도에 맞는 색인어로 변환하고 색인항목을 만들어 배열하는 “처리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즉, 색인은 정보내용의 주제를 분석하여 추출된 주제요소에 대하여 색인언어를 부여하는 ‘작업’과 부여된 결과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만든 ‘결과물’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주제분석 작업과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색인언어(index language)의 선택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며, 색인언어의 이용측면에서도 탐색언어와의 관계, 색인어의 망라성(넓이)과 특정성(깊이)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산업분야에서 무시되어 온 것 같다. 이런 인력 없이는 컴퓨터기구나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인력이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려울 것이다.

4.3. 정보서비스와 사서

사서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도서관이용자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이 역할은 새로운 유형의 사서나 적어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소유한 사서를 요구한다. 어느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용 기기나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제나 동일한 업무부서에서 일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봉사는 참고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서, 목록, 온라인목록 등 여러 처리활동의 통합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Katz(1989, 38)의 말대로 새로운 기술공학의 압력아래에서 사서는 낡은 관례와 참고업무의 방법에 매달린 상태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반대로 사서가 전자방식 때문에 전통적인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이제 사서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과 접근방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존하고 수집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에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

정보서비스사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Lancaster 1985, 92-93).

- 1)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들에 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하며,
- 2) 최신정보주지나 소급탐색 목적을 위한 모든 특정 정보요구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 3) 서비스의 획득방법을 알아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 4) 경쟁적이며 중복적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 5) 다양한 어휘와 탐색논리를 포함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탐색전략과 이용자 관심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 6) 온라인 대화식 방법으로 화일을 탐색할 수 있

어야 하며, 또한 한 개 이상의 언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 7) 기계가독형 화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탐색전략은 물론 색인기법과 어휘색인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야 하며,
- 8) 이용자 정보요구의 정확한 성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성공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나 산업의 정보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이후에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보급이다. 언젠가 본격적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은 일상적이 되어 누구나 정보기구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능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그 때까지는 누군가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안내자 혹은 중개자(서처: searcher)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이란 작업은 매우 넓은 이용기술과 풍부한 이용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색과정과 검색결과는 데이터통신네트워크의 액세스방법, 온라인시스템의 검색명령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데이터베이스의 수록정보 및 검색방법, 주제를 나타내는 통제어(시소러스)나 분류코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최종이용자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서 혹은 서처는 이상과 같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경험을 가져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처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추가로 습득해야 할 것이다.

- 1) 온라인검색이 적절한가 아닌가의 판단
- 2) 온라인시스템의 선택
- 3) 검색주제의 분석
- 4) 검색어(키워드)의 선정
- 5) 검색전략(검색순서)의 수립
- 6) 검색의 실행과 필요에 따라 변경, 수정
- 7) 검색결과의 평가

8) 검색결과와 가공

이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등에 정통하고 있어야 하며, 논리적인 사고력과 분석력이 있고, 독립심과 책임감이 있고, 사람과의 대화술이 있고, 자기학습의욕이 많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깊고, 기억력이 좋고, 인내력이 있으며, 유연한 사고와 머리의 회전이 빨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이 외국의 것으로 영어가 많으므로 영어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요구에 대응되는 탐색어의 선정이 정확하고 탐색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박준식(1993, 3-13)은 정보화사회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사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보수집과 축적 및 제공의 신속성, 대량화, 효율성,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둘째, 정보중개자로서의 역할이다. 책을 가지고 봉사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서지적 정보가 아니라 정보 그 자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이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과다하게 제공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 역할은 정보혜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정보기술자로서의 역할이다. 새로운 정보기기들을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시스템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사서는 소속된 도서관이 봉사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들의 정보탐색과 획득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의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5. 교 육

5.1. 교과내용

문헌정보학 교육은 전문직 교육이며 사회적으로 전문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교육의 의미는 없어진

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전문직의 기능이 달라질 때 교육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 전문기능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나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외부에 영향을 주어야 할 때이다.

전통적인 사서는 분류 목록지식을 가져야 하며, 걸어나가는 색인이어야 하며, 사서의 자질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갖추기 어려운 내용의 능력과 품성은 가져야 한다고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를 알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예측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를 폭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혹은 도서관을 전산화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기본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이 도구를 사용할 현 업무에 대한 철두철미한 파악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업무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으며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성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像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MAR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MARC은 도서관의 기본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기술하는 표준형식이다. 이 형식의 설계사상과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기본도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영상의 원활화를 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산쪽과의 협력도 어렵다.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컴퓨터를 알 필요가 있다. 공부할 분야로는 컴퓨터개론, 하드웨어, O/S(operating system),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일의 처리기법을 위시한 데이터의 작성, 검색 시스템, 시스템의 분석 설계 관리, 온라인탐색기법,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야 할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아도 좋다. 컴퓨터를 아는 만큼 시스템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컴퓨터에 대한 모든 노력은 서지정보처리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많은 분야와 관련을 맺게 되며,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통계학을 포함하여 정보처리를 위한 수학지식이 필요하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지만 정보처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다위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이론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동향과 응용면에 관심을 갖고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것이다. 다중매체(multi-media)의 발달과 보급은 눈부시다. 이들의 활발한 보급과 함께 이미징데이터의 처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리와 동화(動畵)까지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류 및 이들을 편리하게 처리하는 하이퍼텍스트시스템의 보급도 확산일로에 있다.

또한 탁상출판(desktop publishing)이 출판유통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인공지능이나 인지과학적 기법은 지식베이스, 자연언어처리, 자동색인분야 혹은 전문가시스템 등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퍼지집합이론을 정보검색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학(및 전산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논리학 등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Moll and Flood(1988, 318-322)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다음의 경고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 응용분야, 특정 산업에 치우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재만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함께 장래를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술혁신이나 기술변화가 너무 빨라 현재의 기술은 금방 퇴화되기 때문이다.

5.2. 재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사서와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전문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설 바탕이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전문직의 기능이 달라질 때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도서관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현장의 사서가 함께 변화하여 적응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컴퓨터를 기본요소로 하는 새로운 기기, 시스템, 이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는 변화되는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개설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직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가까운 장래의 몇 가지 예측은 가능한 것 같다. 첫째, 도서관시스템에서는 많은 업무처리가 컴퓨터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다. 토털시스템이 운영될 것이며, 데이터의 입력이 OCR로 처리되고, 실용적인 자동색인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문(全文)데이터베이스와 영·화상데이터베이스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둘째, 다중매체의 보급으로 도서관에는 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자료는 전문데이터베이스나 영·화상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어 이용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정보가 통합되거나 공유되며 여러 가지 공중망을 통하여 지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공유비율을 높이고 정보에 대한 액세스 기회를 증대시키는 사회를 말한다. 이 사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흐름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첨병으로서 사서는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흐름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전문가라는 기본배경, 컴퓨터에 대한 지식 그

리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족 시키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사서는 틀림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에서 가치 있는 선도자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1992). 교육통계연보. 서울 : 대한민국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9).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준식(1993). "사서직의 지적 전통, 그 역사적 변용과 전망." 도서관, 48(2).
 Dowlin, K.E.(1989). 전자도서관. 최석두 역. 서울 : 구미무역.
 Dyckman, A. Ann(1992). "Library Assistants in the Year 2000,"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7(1).
 Hafter, Ruth(1986). Academic Librarians and Cataloging Networks: Visibility, Quality Control, and Professional Status. New York : Greenwood Press.
 Katz, William A.(1989). 참고서비스와 참고과정. 노옥순, 김효정 공역. 서울 : 구미무역.
 Lancaster, F.W.(1985). 정보검색시스템. 윤구호, 김태승 공역. 서울 : 구미무역(주).
 Moll, Joy K. and Barbara J. Flood(1988). "Information Science and Information-Related Educational Programs: Their Diversity and Accreditation," Journal of the ASIS, 39(5).

● 근간안내 ●

박준식, 이애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한국도서관협회, 1994년 4월 출간 예정)
 박준식 편,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영인본)(한국도서관협회, 1994년 1월 출간 예정)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 (박준식, 이애란 공편)를 1994년 4월경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색인지는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 전반과 출판, 인쇄, 독서에 관한 단행본, 학위논문, 잡지기사, 보고서 등 관계문헌 전반을 수록하고(약 8000건) 있습니다. 이 색인지는 세분된 주제명 표목으로 배열하고, 저자색인을 첨부하고 있으며, 상세한 참조와 상호참조를 활용함으로써 연관된 주제를 완벽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 색인지의 출간에 앞서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 (박준식 편, 신국판, 311면, 1976)의 영인본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색인지는 해방 이후부터 1974년까지 30년동안의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출판, 인쇄, 독서분야의 잡지 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약 2300건), 중·소항목 중심의 주제명 표목과 저자, 기사명(무저자명일 경우)을 혼합하여 사전체식으로 배열한 문헌탐색의 기본서입니다. 주제명, 저자명으로 바로 탐색할 수 있고, 참조와 상호참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 탐색이 자유롭습니다.

이 두가지 색인지를 구비함으로써 한국 문헌정보학 반세기의 연구성과를 완전하게 총람하고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